교회사역의 원리: 요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The Principles of Church Ministry focused on the 21st chapter of John's Gospel

임 영 효

고신대 신학과 교수

목 차

1. 들어가면서 | 209
2. 교회의 독특한 특징 | 211
3. 교회사역자의 자격 | 216
4. 교회사역의 축복 | 224
5. 교회사역의 절대적 조건 | 226
6. 교회사역의 내용 | 234
7. 교회사역의 목표 | 238
8. 교회사역의 자세 | 241
9. 교회사역의 근거 | 248
10. 나오면서 | 251

요약

교회사역의 원리: 요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종문으로 알려지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은 교회사역의 여러 부분들에 관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 이 장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주님의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교회사역은 전도사역(21:1-14)과 목양사역(21:15-25)임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이 두 가지 임무는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두 수레바퀴와 같이 항상 공존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본 장의 전반부에서는 교회의 선교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게 되어질 때 결실이 풍성한 성공적인 선교사역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목양사역의 조건과 내용(요 21:15-17)과 목양사역의 목표(요 15:18-19)와 목양사역자의 사역자세(요 21:20-23)와 목양사역의 근거(요 21:24-25)가 무엇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교회사역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으로서, 교회사역 신학 혹은 목회신학의 원리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교회사역의 헌장(憲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피흘려 사신 교회의 주님이시므로 제자들에게 교회사역의 사명을 일깨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해 오셨던 사역을 계속하여 지속해 나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므로 (요 21:24-25), 새로운 신자들을 새로운 신앙공동체인 교회로 모으는 것이며 그들을 주님의 양들로 세워나가는 사역이다.

이 사역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독특한 특징, 즉 그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미성숙성을 이해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내로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자세로 임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교회의 사역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질 때 결실이 풍성한 사역이 되어질 것임을 교훈하고 있다.

본 장은 교회사역의 절대적인 조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의 교회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하게 되어 짐을 일깨워주고 있다. 따라서 목양사역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이 사역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를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목양사역의 두 요소는 양을 먹이는 것(feeding)과 양을 치는 것(shepherding)으로 이것들은 목양사역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

주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들을 모으고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교회의 사역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역자들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만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역자는 사역자 개인의 영광이나 야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아의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자이며, 개인적인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은 교회의 사역을 파괴하는 요소로 작용되어지므로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으며,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의 사역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역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요 21:20-22).

특별히 본 장에서는 교회사역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참으로 중요함을 교훈해 주고 있다(요 21:23). 이는 교회의 사역인 선교사역과 목양사역이 이것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안정성이 이것에 영향을 받아 확립될 수도 있고 흔들리거나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1장은 종말의 때까지 모든 족속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선교를 위해 그의 제자들에게 교회사역의 원리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The Principles of Church Ministry focused on the 21st chapter of John's Gospel

주요어

교회사역, 선교사역, 목양사역, 세계 선교, 사랑, 영광, 해석, 적용

Abstract

The Principles of Church Ministry focused on the 21st chapter of John's Gospel

Prof. Dr. Younghyo Im

This paper deals with the last chapter of John's Gospel which is known as the epilogue of it in respect to church ministry. This chapter gives important spiritual messages concerning evangelism ministry(21:1-14) and shepherding ministry(21:15-25). These two ministries are essential to church ministry, and should be working continually like two wheels of a cart.

The first half of this chapter shows that when the church's missionary work is doing in the Lord's presence there will be an abundant harvest. And the second half of this chapter shows that the requirement, the contents(21:15-17), the goal(21:18-19), the ministry attitude(21:20-23), and the foundation(21:24-25) of shepherding ministry.

Therefore, this chapter was written to give a guide for church ministry, and can be said as the charter of church ministry which contains theology of church ministry, that is, the contents of pastoral ministry.

Because the resurrected Lord is the Lord of church which he gave himself up for her, he wants to remind his disciples

of the task of church ministry. This church ministry is the ministry which Jesus was doing in the world. That is, the ministry of gathering new believers into the church and of building them as the sheep of the Lord.

This last chapter teaches that in order to accomplish this ministry fully, the ministers should understand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church, that is, the diversity and immaturity of church members. Also it teaches that the ministers should serve their members with the unconditional love and patience to fill up their deficiency. In addition to this, it shows that when the church ministry is doing according to the Lord's word in the presence of him, it's result will be an abundant harvest.

This chapter reveals that the absolute requirement of church ministry is loving Christ. It intimates that the more a minister has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Christ, the more he loves, cares, and protects his church. Accordingly it emphasizes that shepherding ministry is not a technique but a loving act as shown by the absolute requirement of the ministry. Two elements of shepherding ministry are feeding sheep and taking care of sheep. Thus these two elements are given as the very indispensable requirements of shepherding ministry.

Also this last chapter shows that to make progress in church ministry first of all a minister should be refreshed, and healed by Jesus' love and word. Especially, it teaches that the minister whom the Lord wants is the person who does not seek personal glory and ambition but seek God's glory through the death and

sacrifice of himself. it also warns that a minister should exclude the personal competitive consciousness and the comparative consciousness because they work as the elements of destroying the church ministry.

In John 21:23, it gives an important message today's ministers, that is, in doing church ministry it is very important to interpret the Lord's word accurately and apply it properly. According to this, missionary ministry and shepherding ministry will be successful or not.

In conclusion, the twenty first chapter of John should be accepted to today's ministers as a word of the special revelation that reveals the principles of church ministry to Jesus' disciples for world mission toward all nations.

Keywords | Church ministry, missionary ministry, shepherding ministry, world mission, love, glory, interpretation, application

1.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요한복음의 서문(prologue)이라고 말하고 이 마지막 21장을 요한복음의 에필로그(epilogue) 즉, 종문(終文) 혹은 결어(結語)라고 말을 하고 있다. 요한복음의 서문에서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위에 오시기 이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의 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본 장에서는 이 땅위에 오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강해자 A. W. 핑크(A. W. Pink)는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은 "놀라웁게도 사역에 대한 가장 교훈적이고 완벽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1] "이보다 앞서 있었던 부활하신 구세주의 나타나심은 제자들의 그 당시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확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과 그들의 미래의 관계를 예시하시고 묘사하신 예언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2]

미국 휘튼대학 성경신학교수인 게리 버지(Gary M. Burge)는 "요한복음 21장의 고기잡이 기적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표적이 아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책임과 사역을 일깨워주는, 교회에게 들려주는 에필로그이다. 본 장에서의 주요 이야기-고기잡이 기적과 아침에 모닥불 주위에서 이어지는 예수와의 대화-는 그리스도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는 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사도적 사명을 강화해 준다. 베드로는 어부와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본 장의 의미를

1) A. W. Pink, *Exposition of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Zondervan Pub., 1975), 304.
2) Ibid., 306.

해석하고 있다.3)

주경신학자 레이몬드 E. 브라운(Raymond E. Brown)은 본 장에 대하여 "21장이 교회론적 장(章)에 해당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1, 14절)과 재림(22-23절) 사이의 시간 -교회시대-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반영한다"라고 본 장의 독특한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본 장 "1-14절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상징적 사명을 부여받으나 15-17절에서는 목양의 사명을 부여받는다. ... 15-17절에 언급된 양은 고기를 잡는 상징으로 제시된 선교를 통해 우리에 들어오게 된 신자들을 일컫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4)

따라서 요한복음 21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14절까지는 교회의 사역 중 선교[전도]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인 15절에서 25절까지는 목양[양육]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의 전반부에서는 교회의 선교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게 되어질 때 결실이 풍성한 성공적인 선교사역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목양사역의 조건과 내용(요 21:15-17)과 목양사역의 목표(요 15:18-19)와 목양사역자의 사역자세(요 21:20-23)와 목양사역의 근거(요 21:24-25)가 무엇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교회사역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으로서, 교회사역신학 혹은 목회신학의 원리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교회사역의 헌장(憲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강해설교자였던 알렉산더 맥클라렌(Alexander Maclaren)도 "여기의 마지막

---

3) Gary M. Burge,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John* (Grand Rapids: Zondervan, 2000), 592.

4) Raymond E. Brown, *The Anchor Bibl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XIII-XXI* (New York: Doubleday, 1970), 1082, 1084, 1116.

나타나심은 교회의 사역, 그 일의 어려움, 그로 인한 낙망, 교회의 상급, 교회의 최종적 승리,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대한 축복 등과 관련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5] 라고 말해 주고 있다.

2. 교회의 독특한 특징

요한복음 21장이 가르쳐 주고 있는 교회사역의 첫 번째 원리는 교회사역의 환경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부름 받았다는 것은 그 몸 안에서 행해야할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역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의 독특한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세 번째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곱 명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본문 2절에 나타나는 이 일곱 명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신약교회의 최초의 핵심멤버들이었던 안드레, 베드로, 요한, 빌립, 나다나엘의 5명 중에 베드로, 나다나엘,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브루스 밀른(Bruce Milne)같은 신약학자는 본문에 나타나는 7명의 제자들 모두가 갈릴리 출신들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두 제자들은 안드레와 빌립으로 보고 있다.[6] 왜냐하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이고

---

5) Alexander Maclaren, *Expositions of Holy Scripture: John 15-21*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n.d.), 341.

6) Bruce Milne, *The Message of John*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3), 310.

빌립은 디베랴 호수 근처에 있는 벳세다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

이런 일곱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에 관하여, 주경신학자 앤드류 링컨(Andrew T. Lincoln)은 "완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곱이라는 숫자와 더불어 이 그룹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전 공동체의 대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그 의미를 언급한 것처럼,[7] 이 일곱 명의 제자들은 신약교회의 최초의 구성원들로서 이들은 신약교회를 상징하고 있다.[8] 켄트 휴즈(R. Kent Hughes)는 이 일곱 명의 제자들은 "교회의 축소판"(a microcosm of the church)이었다고 언급하면서 "그 교회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민족들을 나타내는) 그 바다가 이방인들의 영역인 갈릴리에 있는 바다라는 점에서 보여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9]

그러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가장 문제 많았던 제자들이었다. 첫 번째 사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자였고, 다른 한 사람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한 그런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자만심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최고인양 자만심에 사로잡혀 항상 앞서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제자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John MacArthu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John 12-21* (Chicago: Moody Publishers, 2008), 390.

7) Andrew T. Lincoln,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John* (New York: Hendrickson Publishers, 2005), 510.

8) 비슬리-머리(G.R. Beasley-Murray)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일곱 제자들의 수는 "전체 제자들의 무리를 상징하며 더 나아가 모든 제자들의 조직 즉 교회를 상징하는 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Word Biblical Commentary: John* (Waco, Texas: Words Books, Publisher, 1987), 399.

9) R. Kent Hughes, *Preaching the Word: John* (Wheaton, Ill: Crossway Books, 1999), 462-463.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마 16:22)라고 진언했다가, 주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심하게 책망을 받았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였다.

도마는 쉽게 낙망하고, 매사에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항상 어떤 사건의 어두운 측면을 바라보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 자국에 넣어보고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찼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처음 소개되고 있는 두 제자들은 실족하기 잘했던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은 자신의 친구 빌립에게서 예수님을 소개 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6)라고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냉소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로부터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요 1:47)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믿게 되었던 그런 사람으로 앞에 소개된 베드로나 도마와는 정반대 유형의 사람으로서 영적 지식이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사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요 1:51).[10]

네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제자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으로, 이 두 사람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혈기가 많고 아주 폭발적이고 야심이 많고 때로는 편협한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런

10) 나다나엘은 바돌로매와 동일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성격의 사람들이었다. 누가복음 9장 52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벌컥 화를 내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꾸짖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의 성격이 얼마나 거칠고 과격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인간적인 야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서 요청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했다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나머지 두 사람의 제자들은 그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로서 별로 두드러진 것이 없고 영향력이나 자랑할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초창기 신약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너무도 성격이 다르고 때로 괴팍스럽기도 하고, 개성이 강하고,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이런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구원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어느 시대이건 주님이 부르시는 교회의 구성원들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보잘 것 없고, 모나고, 문제투성이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사역은 다양한 성품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사역임을 본문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어떤 이는 교회의 눈으로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며, 또 어떤 이는 교회의 손으로서, 그리고

다른 이는 교회의 발로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그러나 교회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고 하는 구분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긴요한 사람들인 것이다"라고 교회의 독특한 성격을 잘 설명한 바 있다.[11)]

미국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 총장인 제프 아이오그(Jeff Iorg)는 교회사역자가 사역대상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예수님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셨다. 마태는 또 이렇게 말한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셨고 겉모습이나 그들이 보이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보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냥 얼굴 없는 군중을 보시지 않고 그들을 지치고 상처받고 의지할 데 없는 개개인들로 보셨다. ... 사역의 열정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나온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준다. ... 우리가 사람들을 죄인들의 집단으로, 진이 빠지게 하는 무리로, 밑 빠진 독으로, 혹은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회원들로 본다면, 그들을 동정심을 가지고 볼 수도 없고 그들을 섬길 지속적인 열정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면 당신의 깊은 곳에서 동정심이 생긴다. ... 사람들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 사역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비결이다. 열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12)]

그러므로 어느 시대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속해있고 섬기는 교회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런 다양한 성격과 문제의

---

11) Joseph S. Exell, *The Biblical Illustrato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3), 474.

12) Jeff Iorg, *The Character of Leadership*, 서진영 역, 『성공하는 리더의 9가지 성품』 (서울: 요단출판사, 2010), 215-217.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변함없는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섬기고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사역이 바로 교회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교회는 흠 없는 의인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역자 자신과는 다른 성격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수용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3. 교회사역자의 자격

3.1.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신 것은 이 갈릴리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기 때문이다. 이 곳에서 예수님의 일곱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 곳에서 주님은 첫 번째 이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이 곳에서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차는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었다.

또한 이 갈릴리 바다는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주님이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곳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장소가 바로 이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위시하여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던졌을 때 한 세겔의 은전을 얻게 되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바로 이 곳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과거에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사실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 곳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을 주님 자신이 미리 말씀해 주셨고(마 26:32) 또한 부활하신 날에도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을 전하라고 하였던 것이다(마 28:7).

따라서 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에 대한 확신과 이미 과거에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고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받은 사명과 받은 은혜를 일깨워주셨던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지난날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곤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셨던 사실을 항상 기억하므로 현재의 모든 어려움들과 난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끝까지 사역자의 길을 완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존 맥아더(John MacArthur)는 요한복음 21장 1-14절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에 더 이상 물리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제자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3)]

3.2. 일상적인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본문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함께 배에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다. 시몬 베드로를 위시하여 일곱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곳으로 와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재능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신들이 평소에 익숙했던 고기 잡는 일을 위해 배에 함께 오르게 되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일상적인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물으셨고, 이 물음에 제자들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일상적인 일들에서 면제가 되었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시므로 제자들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합리적인 방편들을 사용하여 일상적인 일들과 책임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사역에 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영국의 목회자 J. C. 라일(Ryle) 감독은 이런 말을 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단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열심히

---

13) John MacArthu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John 12-21* (Chicago: Moody Publishers, 2008), 388-389.

일하지도 않으면서 빵이 입으로 굴러 떨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수고하면서 몸부림치고 애쓰지 않는다면 원수들을 정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 또 우리에게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14)]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몬 베드로를 위시하여 일곱 제자들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핑계로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일상적인 일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고 비록 그물과 어구들이 널려있고 물고기의 비늘들로 지저분한 배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제자들이었기에 그들의 일상생활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에게 찾아 오셨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3.3.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날씨가 더워서 바다 윗부분의 물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고기들이 시원한 물 밑 깊은 속으로 내려갔다가 서늘한 밤이 되어서 수면 가까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밤에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게 되어진 것이다. 또한 밤에 잡은 고기는 아침 일찍 신선한 상태로 팔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개 밤에 고기잡이를 한다는 것이다.[15)]

---

14) J. C. Ryle, *Expository thoughts on Luke,* Vol. 2. (Edinburgh EH: The Banner of Truth Trust, 1858), 413, 418.

15) Raymond E. Brown, op. cit., 1069.

이렇게 제자들은 경험과 자신들의 갈고 닦은 기술들을 총동원하여 고기잡는 일에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지마는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는 실패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역의 결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어떤 과정의 학문을 이수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습득했다고 할지라도 사역의 궁극적인 진정한 성공은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진정한 사역의 열매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므로, 그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친히 말씀해 주셨다. 강해설교자 브루스 밀른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습성에 대하여 죽음으로써만 우리는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수확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바가 있다.[16]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기진맥진해 있었고 허탈감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였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찢어지지 아니한 그물 속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는 것은 복음 사역의 결과가 실패하지 않고 풍성할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역자 자신의

16) Bruce Milne, op. cit., 313.

생각에 이끌리어 나 자신의 힘으로 영적인 일들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제자들처럼 풍성한 사역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3.4. 두 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다

본문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자신들의 곁에 서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부르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과 일상적인 사역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고 또 모든 일들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신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주님은 본문 5절에서 자신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었던 제자들에게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 말씀은 직역하면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라는 말씀으로 주님은 제자들의 수고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도

록 유도하는 그런 질문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런 질문에 제자들은 "없나이다"라고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대답하였을 때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방법을 일깨워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므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어졌는데, 그것도 적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들로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있어서의 진정한 성공과 열매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실력이나 재주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갈릴리 바다의 고기 떼가 지금 어디에 몰려 있는 것까지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함께 할 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인가? 본문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서 계셨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바로 알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만이 이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이 사실을 알렸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왜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 볼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이었고 만찬석상에서도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고 그러하기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고 말았지마는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사도 요한이 왜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었고 자신도 역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인식하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마지막 부분인 19절과 20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는 말씀 그대로 주님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

이 시대에 사역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이 창조세계를 바라볼 때 사도요한처럼 "주님이 창조하셨구나"라고 고백하면서(요 1:3), 주님이 곁에 계심을 깨닫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든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역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교회사역의 축복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 사역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조반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눅 22:28-30).

본문 9절에 보면 이 일곱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수확하게 되어진 큰 물고기 153마리가 들어있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왔을 때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는 말씀대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고한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조반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본문 12절과 13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말씀하시면서 친히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밤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수고하고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한 주의 백성들이 새날이 밝아오는 찬란한 그 아침에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부활의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아닐 수 없다.[17]

여기에 숯불은 밤새 고기잡느라 물에 젖고 피곤한 제자들의 옷과 몸을 녹여주고 따뜻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떡과 생선은 일하느라고 허기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의 수고를 위로하시기 위한 축복의 상급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 잔치에 주님께서는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천국잔치에서는

17) Alexander Maclaren, op. cit., 356-357, 372. R. Kent Hughes, *Preaching the Word: John* (Wheaton, Ill: Crossway Books, 1999), 466.

성도들이 이 땅위에서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가 뒤 따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고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마지막장인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주님이 친히 약속해 주신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땅위에서 주를 위하여 행한 그 모든 수고와 봉사에 대하여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고 이 땅위에서 사역한 결과로 주님을 믿게 되어진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면류관이 되어질 것임을 확신 가운데 고백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려서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을 세어보니 그물에 가득한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들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은 주님이 주도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사역에는 성공적인 결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18)]

---

18) Raymond E. Brown, op. cit., 1097. 잡은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다고 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시릴(Cyril of Alexandria)은 10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나타내고 5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나타내고,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설명하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한바가 있다. Raymond E. Brown, op. cit., 1975.

본문 11절의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에서 “끌어 올리다”라는 동사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말씀 가운데 “이끌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므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또한 끌어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멸망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주님의 절대적인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19]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이 사실을 약속해 주셨다.

5. 교회사역의 절대적 조건

교회사역의 절대적인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주경신학자 레온 모리스(Leon Morris)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치라고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있는 점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음을 주목해봐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인 것이다. 다른 자질들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사랑은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요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20]

---

19) 브루스 밀른은 “선교는 열방들 중에서 큰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지만, 너무 많아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Bruce Milne, op. cit., 313.

20) Leon Morri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71), 875.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준비한 조반을 제자들이 먹은 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졌던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역의 기회를 주시고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 반복하여 질문하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목양사역의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즉시로 자신을 부인한 이유를 질문하거나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표시로 식탁을 먼저 배설하시고 베드로와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온유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대화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다.

이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자신이 직접 지어주었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름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이름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불러주었던 이름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다.

이외에도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의 염려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사용하였던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었다.

이렇게 평소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용하였던 그 친숙한 이름으로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신 것은 과거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과 주님과 함께 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과거에 고백했던 그 신앙고백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베드로가 서야될 자리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 후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다.[21]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전에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마 26:33)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면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제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교만한 자세를 가졌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질문을 하신 것이다.

이런 주님의 질문에 이제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세로 말하지 아니하면서 또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신이 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하므로 겸손한 자세를 나타내 보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제는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알아주시는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리로 내려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22]

---

21) 헹스텐버어그(Hengstenberg)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만 강조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간접적으로 강하게 입증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J. C. Ryle, *Expository thoughts on John,* Vol. 3.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873), 508에서 재인용.

22)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예수님은 세 번의 질문 가운데서 두 번은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즉 "신적인 사랑으로,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베드로는 두번 모두 그런 고차원적인 사랑을 가졌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고 "저는 필레오의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사랑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히 답변을 하였을 때 주님은 마지막 세 번째에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라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전지하심에 호소하면서 그런 인간적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주님은 언제나 저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고 내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저의 연약함과 결함들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셨고 저에게 찾아오셨고 저를 먹여주셨습니다. 저의 사랑은 주님의 이런 사랑에는 도무지 미칠 수 없는 참으로 미미하고 미천한 것이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과거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할 수 있느냐?" "너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너가 참으로 회개했느냐?""너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에 대해서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다.[23]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참된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인내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교회[목양]사역의 유일한 조건으로 주님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온갖 어려움들과 낙심되는 일들을 기쁨으로 극복해

---

23)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하는 결과이다. 이것이 곧 중생이다. 중생은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다. 성령께서는 영혼의 성향과 마음의 본성을 변화시키신다. ..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생겨난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비록 최선을 다해 즉 온전히 그 분을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네'라고 대답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R. C. Sproul, *Can I Be Sure I'm Saved*? 조계광 역, 『구원의 확신』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108-109.

나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사역자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구성원들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 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을 또한 사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교회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동시에 주님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만 해도 이미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그 예수님은 여전히 행동하고 계시고 여전히 가르치시고 계신다"고 현재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주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또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자신을 다메섹의 성도들과 동일시하여 다메섹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것 역시 주님과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교회는 주님이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고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윌라드 스와트리(Willard M. Swartley)는 "사랑과 사역은 본질적으로 동반자인데, 이는 사랑이 사역의 기초이기 때문이다(Love and ministry are essential partners, for love is the foundation of ministry)"라고 적절히 말해주고 있다.[24]

19세기 영국에서 사도시대 이래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찰스 스펄전(Charles H. Spurgeon)은 "진실한 목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도 사랑하는 마음이요 두 번째, 세 번째 조건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For the first, second, and third qualification for a true pastor is a loving heart). ...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분을 위해 일할 수도 없습니다(You cannot work for Christ if you do not love Him)"라고 말을 한 바가 있다.[25]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를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고 그 직분을 제대로 신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으며,[26] 박윤선 목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양떼에게서 아무런

---

24) Willard M. Swartley, *Believers Church Bible Commentary: John* (Harrisonburg, VA: Herald Press, 2013), 496.

25) Charles Haddon Spurgeon, *The Treasury of the Bible*, New testament Volume Two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8), 717. 스펄전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라. 모든 사는 날 동안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위해서 축복하실 것이다. Charles Haddon Spurgeon, op. cit., 718.

26)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21 and The First Epistle of John,* Trans. T.H.L. Parker (Grand Rapids: Eerdmans, 1961), 219.

칭찬이나 보상이 없어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주님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남긴바 있다.27)

롤록크(Rollock)는 교회사역자가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다.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남을 책망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을 견책하고자 한다면 그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다면 그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 만일 당신이 '사랑'으로 견책하는 일에 익숙해 있지 않다면 치료약이 되어야 했던 그 견책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교사나 훈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비와 온유함으로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다."28)

이처럼, 목양사역이 쉽지 아니한 사역인 것은 양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별별 성품을 가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목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을 미워하고서는 목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 나갈 수가 없고, 사역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회사역자가 교회 구성원들과 싸우게 되면, 져도 지는 것이고, 이겨도 지는 것이 되고 만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어려운 사역이기 때문에 목자장되신 주님은 목회사역자가 양을 먹이고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일깨워주신 것이다.29)

영국의 강해설교자 캠벨 몰간(G. Campbell Morgan)은 "양을 친다는 것이 언제나 꽃이 핀 들판을 가로질러 거닐며 잔잔한 물가를 거니는 부드럽고 달콤한 목가적인 직업이 아니다. 때로 그것은 양 떼를 떠나 황량하고 거친

---

27) 박윤선, 『성경주석: 요한복음』 (서울: 성문사, 1958), 720.

28) J. C. Ryle, *Expository thoughts on John*, Vol. 3.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873), p. 509에서 재인용.

29) 교회사역자의 절대조건인 사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Philip G. Ryken, *Loving The Way Jesus Loves*, 김미연 역,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를 참고하라.

산야를 헤매며 늑대와 싸우고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 늑대에게 물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목양의 어려움을 말한 바가 있다.[30] 그러므로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역자는 그의 일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역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온갖 어려움들과 낙심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다(고후 5:13-14).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들의 일은 쉬워질 것이고, 그들은 그 일에 큰 열심을 갖게 될 것이다.[31]

그러면, 어떻게 사역자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현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준에 대하여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본 후에, 주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자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더욱 많이 가지게 되어 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역하며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의식이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주님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30) G. Campbell Morga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Old Tappan,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n.d.), 330.

31)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Genesis to Revelati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1), 1632.

6. 교회사역의 내용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후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반복하여 교회사역의 내용은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bosko)"라는 말씀은 단순히 꼴을 먹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에, "내 양을 치라 (Poimaino)"는 것은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32] 그러므로, 양을 먹이라는 것은 말씀의 꼴로 먹이는 것으로 설교나 가르치는 교육을 의미하며, 양을 치는 것은 보다 광범위한 목회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회사역자의 영적 리더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양을 먹이는 사역을 위해서는 강해설교와 성경교육 분야를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양을 치는 사역을 위해서는 리더십개발이 필요하며, 벧전 5장 2절과 3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영성개발이 교회사역자들에게 요구되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다.[33]

---

32) J. C. Ryle, 508. Craig S. Keener는 "보스케(21:15,17)는 동물들을 먹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포이마이네(21:16)는 목자의 모든 의무들을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Vol. 2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03), 1237. Richard C. Trench는 "보스케인[먹이라]은 단순히 먹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포이마이네인[치라]은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목자의 전체적인 일, 즉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모으는 것과 더불어 그들에게 먹일 초장을 찾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Synonyms of the New Testament*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and Company, 1894), 85.

33) 요한복음 21장 15-17절은 교회사역의 4대 영역이 바로 **강해설교개발(Development of Expository Preaching)**과 **성경교육개발(Development of Bible Education)**과 **리더**

그런데, 양을 먹이라고 처음과 세 번째에 말씀하신 것은 목회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역이 바로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말씀하신 양은 장성한 양으로, 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성숙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고 그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성숙한 신자도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학자 웨스트콧(Westcott)은 "양을 먹이는 것(설교)는 목사의 직무 중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였으며,[34] 주경신학자 프루머(Plummer)는 "멀리 가지 못하는 어린 양에게는 인도가 필요치 않다. 그러나 양이 되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게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35]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선 벨리지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세계적인 강해설교자 존 맥아더 목사는 "목자의 목표는 양들을 즐겁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먹이는데 있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의 영혼에 자양을 공급하는 데 있다. 목자는 양들에게 젖과 같은 가벼운 음식만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견실한 성경 진리라는 필수적인 고기도 공급해야 한다. 양 무리를 먹이지 않는 사람들은 목자로서는 부적합하다(렘23:1-4, 겔 34:2-10)"라고 목양사역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36]

미국의 개혁성경대학의 학장인 스프로울(R. C. Sproul)도 "왜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는 것에 그렇게 많은 강조를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양이 먹여지고,

---

십개발(Development of Leadership)과 **영성개발(Development of Spirituality)**이 되어져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34) B. F. Westcot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78), 303.
35) 이상근, 『요한복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61), 365에서 재인용.
36) John MacArthur, Jr., *Rediscovering Pastoral Ministry* (Dallas: Word Publishing, 1995), 29.

양육되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힘으로 채워질 때, 그들은 세상에 풀어놓는 강력한 군대가 되어 진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문화 속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 한다"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37]

이처럼,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양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고, 물을 찾아 마실 수도 없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들을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양들은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사나운 늑대나 다른 짐승들이 와서 해치게 되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또 방향감각이 없기 때문에 곁길로 잘 가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목자의 보호와 관리와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터키 악삼에서 한 마리의 양이 절벽 가까이에서 방황하다 떨어졌는데, 그 뒤를 따라 다른 양들이 계속해서 뒤따라 떨어져 죽으므로, 무려 450마리의 양들이 하나의 하얀 시체 더미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떨어졌던 양들은 목숨은 건졌는데 그 이유는 이미 쌓인 양들의 시체더미가 일종의 쿠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티모시 위트머(Timoty Z. Witmer)는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38]

이러한 양들의 독특한 특성에 관하여, 조셉 스토웰(Joseph M. Stowell)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양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강하거나 빠르지도 않고 영리하지도 않은 동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양은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되기가 십상이다. 양은 또 방황하며 길을 잘 잃는 동물이다.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목자 없이는 알아서 자기 우리로 찾아오지 못한다.

---

37) R. C. Sproul, *St. Andrew's Expositional Commentary: John* (Lake Mary, FL: Reformation Trust Publishing, 2009), 406-407.

38) Timoty Z. Witmer, *The Shepherd Leader*, 임경철 역, 『목자 리더십』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4), 215.

양은 물살이 빠른 곳에서는 지나치게 물을 마시는 경향이 있다. 양의 콧구멍과 입은 바싹 붙어 있기에 갈증을 해소하려다가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하면 양은 동물의 왕국 중에서도 영리한 면에서나 길을 잘 찾는 면에서 우둔한 동물 축에 속한다. 말하자면 도움이 필요한 동물인 셈이다.

사람들도 쉽게 상처를 입는다. 게다가 고집만 셀 뿐 어리석기 짝이 없고 약한 존재들이다.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사람을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지하 세계의 영들에게 손쉬운 표적감이다.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았든, 얼마나 부유하든, 얼마나 재주가 많든, 또 제아무리 우리 중 최고 고수라 할지라도 악한 영의 세력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양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목자들이 하는 일이다. 목자들은 돕는 이들이다. 목자들은 푸른 풀 냄새를 따라가다가 가시덤불로 잘못 들어간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구해내는 자들이다.[39]

그러므로 목양의 사명을 받은 교회사역자들은 모든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대상자들을 조건없이 돌보고 그들의 삶에 건설적인 방법으로 개입해야 한다. 사역대상자들이 보답을 하던 하지 않던 그들이 예수님께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말씀의 꼴로 먹이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서 세워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주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들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기

39) Joseph M. Stowell, *Final Question of Jesus*, 박혜경 역, 『열정의 회복』 (서울: 디모데, 2004), 78-79.

때문이다. 그런 예수님이 교회사역자들이 그분을 도와 그 일을 함께 수행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는 말씀 그대로 전도와 양육과 치유의 사역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식을 취하시고 재충전을 위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이익에 몰두하거나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삶은 오로지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교회사역자들도 자신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사역대상자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사역자들이 하는 말과 드리는 찬양과 경배 이전에,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며, 그들의 필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주목하시고 그 사역자의 삶 속에 자리잡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나가실 것이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님은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16절과 17절에서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어린 양"은 연령적으로 어린 자를 포함해서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는 자, 새로 개종한 신자, 초보 신자, 영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신자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것은 어린 양에서 양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목양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7. 교회사역의 목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목양사역의 사명을 주신 후에 본문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베드로가 목양사역을 다 완수한 후에 순교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유롭게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했지마는, 노년의 때가 되면 사형집행인의 명령대로 팔을 벌리게 되고 그가 죽게 될 십자가에 묶이게 되어 고난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40]

대부분의 교회역사가들은 베드로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 주후 64년경에 로마에서 자신은 주님이 죽으셨듯이 똑바로 죽을만한 가치가 없는 자라고 생각해서 자원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십자가에 못박혀 순교했다고 말을 하고 있다.[41]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고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삶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

40)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이 팔을 벌려 십자가의 가로대에 묶여서 처형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식을 암시하고 있다. "띠띠우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단단히 고정시킨다"는 뜻으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체의 중간 부분을 묶는 습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1)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 피로 물든 증거를 통해 순교자가 되는 영예를 누렸지만, 이와는 달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했던 제자로서 자신을 5번이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서에서 그가 한 말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주시라"는 단 한번 자신의 말을 기록해 놓았을 정도로 말을 적게 했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심오한 다락방 강론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기록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요한 1,2,3서를 기록하였고, 나중에 도미시안 황제 때 밧모 섬으로 유배를 가서 그 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뒤에 다시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터툴리안은 "사도 요한이 100세 생일잔치를 한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에베소에서 1세기 끝 무렵까지 살다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고 순교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였다. 따라서 이 두 제자의 죽음은 둘 다 방식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사역의 중요한 목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적인 기도 가운데서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밝히셨고(요 17:4), 또한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임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을 요한복음이 이를 증거해 주고 있다(요 12:23, 28, 13:31-32, 17:1).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였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목표임을 분명히 천명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 13절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유대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쳤을 때 충이 먹어 죽게 되는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성군 다윗은 그가 쓴 시편 57편 1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자신의 삶의 목표가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임을 밝혔던 것을 볼 수 있다.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언급은 교회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참된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

8. 교회사역의 자세

8.1. 예수님처럼 언제나 용서와 포용의 자세로 교회사역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의 엄청난 허물과 과오를 직접 지적하거나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단 한 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허기진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먹여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주님의 배려와 사랑에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결코 성급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것도 베드로가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자신과 화해하므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 주님을 따랐던 때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 까지 하오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무제한적인 용서를 해야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과 과오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후에 그 베드로를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 사역자들도 이러한 주님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이런 용서를 실천해야 할 것을 권면한 것 같이, 용서와 포용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사역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8.2. 주님만 바라보며 사역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라"는 명령이다.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었을 뿐만 아니라(막 1:16-17),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요 21:22)으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 명령에 대해서 미국의 강해설교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James M. Boice)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따른다면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김의 표준으로 삼을 것이며, 우리 자신의 불완전한 섬김의 형태를 표준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한바가 있다.[42]

그러나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뒤따르고 있었던 자신의 친구 사도 요한을 보고서는 "이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사도 요한의 미래에 대하여 주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은 본문 22절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앞날과 사역의 형태에 대하여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

42) James Montgomery Boice, *The Gospel of John: An Expositional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Corporation, 1985), 1475-1476.

오직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분별하여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니 쓸데없는 참견과 호기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받은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라는 뜻으로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두 번이나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또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사역의 초점이 흐려지게 되어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도중하차하므로 결국에는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물위로 걸어가다가 몰아쳐오는 험한 파도를 바라보고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단되고 말았을 때 그만 물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만 것과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Warren W. Wiersbe)는 "당신이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때가 조심을 해야 할 때이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모든 신자의 목적이자 습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 자신, 환경,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정신이 산란케 되는 것은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당신의 믿음의 눈을 오로지 주님께만 향하게 하라"고 조언을 한 바가 있다.[43]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특별한 소명을 굳게 붙잡고 자기 임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에는 관여하지 않고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만 집중하므로

---

43) Warren W. Wiersbe, *Be Transformed: An Expository Study of John 13-21* (Wheaton, Illinois: Victor Books, 1986), 149.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회사역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사역에 임하게 되어질 때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충만한 생명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사역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3. 주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자세로 교회사역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 17절에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은 베드로가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고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에 베드로가 교회사역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구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에게 목양사역의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에 일어날 순교의 사건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므로 이 사실을 친히 증거해 주셨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죽게 될 시간과 장소와 그 구체적인 죽음의 형태와 그가 당하게 될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미리 다 아시고 이것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결과를 분명히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이미 그의 생각과 과거의 행실을 다 알고 계셨음을 말씀해 주셨고(요 1:47-48),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처음부터 미리 아시고 계셨고(요 6:64),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요 11:11),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다(요 13:38).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묻고자 하시는지 묻기도 전에 미리 다 알고 계셨음을 요한복음서가 이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친구였던 사도 요한의 미래와 그의 운명에 대하여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본문 22절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대답을 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바로 인간의 생명과 운명의 결정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권세있는 자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이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통치하시므로 그리스도인이 감당치 못할 어려운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므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사역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을 가지게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주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성도나 교회사역자가 어떻게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으며 다를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주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확신하면 확신할

수록 죄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해와 억울함도 능히 극복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므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용기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8.4.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교회사역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사역의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뒤따르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의 미래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본문 22절에서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주변의 사람들과 초대교회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이 퍼져 나가므로 그 엄청난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성이 무너지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졌을 때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요한이 그 오류를 시정하는 내용을 23절에서 기록하게 된 것이다.

사도 요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단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만일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그 때까지 세상에 머물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베드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형제의 장래에 관한 문제이니 주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을 오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언급하게 되어진 것이다.

이것은 교회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엄청난 혼란과 문제를 야기시켜서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는 “많은 문제들은 잃어버린 죄인들에 의해서라기보다 혼돈 가운데 빠진 성도들에 의해 야기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오해를 야기시킬 뿐이다”라고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해 주고 있다.44)

오늘날 왜 이단들이 날이면 날마다 우후죽순과 같이 번성하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단이 많은 이단천국이 바로 대한민국으로서, 2011년도 7월 1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한국에 자칭 재림주, 보혜사라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 2000년 기준으로 1500명 이상되는 이단 집단이 한국에 140여 종류의 이단종파들이 자리잡고 있고, 그 추종자들이 무려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단이 번성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사역자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되게 적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만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사역자는 양들에게 복음을 왜곡됨이 없이 전달하고,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므로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더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구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사역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미국의 강해설교자 도날드 반하우스(Donald Barnhouse)는 “만일 주님이 3년 안에 오신다면 나는 2년을 공부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년을 설교하는데

44) Warren W. Wiersbe, op. cit., 150.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진 테일러는 "성직자는 요리사가 아니라 의사이다. 그러므로 그는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한바가 있다. 이런 말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9. 교회사역의 근거

본문은 교회사역의 근거가 기록되어진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문 24절과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다.[45] 여기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했다고 하는

45) 본문에서의 "우리"에 대하여 렌스키(Lenski)와 웨스트코트(Westcott)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로, 채프만(J. Chapmann)은 편집상의 주어로서의 "우리"를 사용한 것으로 자신의 기록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호와드 잭슨(Howard M. Jackson)은 저자인 요한과 그의 독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호스킨스(E. C. Hoskyns)는 복음서와 서신서들에서 동일한 단어[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요1장 14절과 요한일서 1-4절), 요한 공동체나 에베소의 장로들을 의미하지 않고 사도 요한이 포함된 원래의 사도들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리차드 바우캄(Richard Bauckham)은 요한일서 1:1-5, 4:11-16, 요한삼서 9-12, 요한복음 1:14-16, 3:10-13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위있는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의 의미로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G. R. Beasley-Murray, *Word Biblical Commentary: John* (Waco, Texas: Words Books, Publisher, 1987), 413. Colin G. Krus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John* (Downers Grove, Illinois, 2003), 388.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John's Gospel (Minneapolis, Minnesota, 1943), 1442. Frederick Dale Bruner,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12), 1251. Willard M. Swartley, *Believers Church Bible Commentary: John* (Harrisonburg, VA: Herald Press, 2013), 489을 참고하라.

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했음을 밝히면서 자신의 기록이 참되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 "참되다"(알레데스)는 단어는 거짓이나 거짓말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것으로 성경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로서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삶과 사역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말씀하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위에 오셔서 행하신 주님의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일부를 선택하여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므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무궁무진하신 분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 중에 일부분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성경의 충족성을 강력하게 암시해 주고 있다.[46)]

메릴 테니(Merrill Tenney)는 헬라어 성경에 "우리가 안다"는 1인칭 복수 "oidamen"으로 쓰고 있지만 1일칭 단수로 표기하여 "oida men"으로 볼 때 이 의미는 "내가 확실히 안다" 즉 "나는 그의 증거가 참인 것을 확실히 아노라"고 번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Merrill C. Tenney,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John,* Vol. 9. (Grand Rapids: Zondervan Corporation, 1981), 203.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복음서 기자가 기록한 핵심적인 내용들만으로도 믿음을 세우고 구원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적절히 조언해 주고 있다.[47] 크레이그 케너(Craig S. Keener)도 “요한이 [이 복음서에] 포함시킨 것은 그의 청중들을 더 깊은 믿음으로 초청하기에 충분한 것이며, 그 목적을 위하여 선택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48]

따라서 교회의 사역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져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이 증거라는 용어는 요한복음에 47회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요한복음의 중심주제가 되어지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므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의 사역과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에게 증거하므로 그들을 구비시키고 세워가는 목양의 사역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 되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교회사역자들도 사도요한이 행하였던 이런 증거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감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어부의 사역과 그들을 말씀과 사랑 가운데서 세워나가는 목양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46) 성경의 진리성과 충족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Kevin DeYoung, *Taking God at His Word*, 장택수 역, 『성경, 왜 믿어야 하는가』 (서울: 디모데, 2015)를 참고하라.

47) John Calvin, op. cit., 226.

48) Craig S. Keener,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Vol. 2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03), 1242.

10. 나오면서

요한복음 21장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주님의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교회사역은 전도사역과 목양사역임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이 두 가지 임무는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두 수레바퀴와 같이 항상 공존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주경신학자 비슬리-머리(G. R. Beasley-Murray)의 언급과 같이, 본 장은 "주님이 자신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자신의 지체들을 위해 가지고 계신 뜻에 대하여 다양한 교훈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49]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피흘려 사신 교회의 주님이시므로 제자들에게 교회사역의 사명을 일깨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해오셨던 사역을 계속하여 지속해 나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므로(요 21:24-25), 새로운 신자들을 새로운 신앙공동체인 교회로 모으는 것이며 그들을 주님의 양들로 세워나가는 사역이다.

이 사역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독특한 특징, 즉 그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미성숙성을 이해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내로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자세로 임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교회의 사역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질 때 결실이 풍성한 사역이 되어질 것임을 교훈하고 있다.

본 장은 교회사역의 절대적인 조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의 교회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하게 되어 짐을 일깨워주고 있다. 따라서 목양사역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이 사역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를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목양사역의

---

49) G. R. Beasley-Murray, *Word Biblical Commentary: John* (Waco, Texas: Words Books, Publisher, 1987), 416.

두 요소는 양을 먹이는 것(feeding)과 양을 치는 것(shepherding)으로 이것들은 목양사역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양들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주인되심을 인식하면서 사역에 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해를 끼치는 것은 그 교회를 피흘려 세우신 주님께 대한 적대적 행동이 되어짐을 일깨워주고 있다.

주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들을 모으고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교회의 사역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역자들이 새로워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조반 초대와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교회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를 통해서 사역자의 개인적인 실수와 허물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어질 때에 변화를 받아 기쁨과 능력 가운데서 사역이 수행되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즉 교회의 사역은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용서를 경험하고 치유받은 자들의 사역임을 밝혀주고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역자는 사역자 개인의 영광이나 야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아의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자이며, 개인적인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은 교회의 사역을 파괴하는 요소로 작용되어지므로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으며,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의 사역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역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요 21:20-22).

그러므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고유한 직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본 장에서는 사도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시키는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교회사역의 대적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조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교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사역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참으로 중요함을 교훈해 주고 있다(요 21:23). 이는 교회의 사역인 선교사역과 목양사역이 이것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안정성이 이것에 영향을 받아 확립될 수도 있고 흔들리거나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본 장은 교회 사역자가 기록된 특별계시의 말씀이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계시의 진정성과 성령에 의해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과 사역에 필요한 영원한 진리의 요소들이 부족함 없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계시의 충족성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치우침 없이 신실하게 사역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풍성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1장은 종말의 때까지 모든 족속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선교를 위해 그의 제자들에게 교회사역의 원리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윤선. 『성경주석: 요한복음』 서울: 성문사, 1958.

이상근. 『요한복음 주해』 서울: 대한예수교 총회교육부, 1961.

Beasley-Murray, G. R. *Word Biblical Commentary: John.* Waco, Texas: Words Books, Publisher, 1987.

Boice, James Montgomery. *The Gospel of John: An Expositional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Corporation, 1985.

Brown, Raymond E. *The Anchor Bibl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XIII-XXI.* New York: Doubleday, 1970.

Bruner, Frederick Dale.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12.

Burge, Gary M.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John.* Grand Rapids: Zondervan, 2000.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21 and The First Epistle of John.* Trans. T.H.L. Parker. Grand Rapids: Eerdmans, 1961.

Exell, Joseph S. *The Biblical Illustrato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3.

Henry, Matthew.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Genesis to Revelati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1.

Hughes, R. Kent. *Preaching the Word: John.* Wheaton, Ill: Crossway Books, 1999.

Iorg, Jeff. *The Character of Leadership,* 서진영 역, 『성공하는 리더의 9가지 성품』 서울: 요단출판사, 2010.

Keener Craig S.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Vol. 2.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03.

Kruse, Colin G.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John*. Downers Grove, Illinois, 2003.

Lenski, R. C. H. *The Interpretation of St. John's Gospel*. Minneapolis, Minnesota, 1943.

Lincoln, Andrew T.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John*. New York: Hendrickson Publishers, 2005.

MacArthur, John. *Rediscovering Pastoral Ministry*. Dallas: Word Publishing, 1995.

_____.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John 12-21*. Chicago: Moody Publishers, 2008.

Maclaren, Alexander. *Expositions of Holy Scripture: John 15-21*.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n.d.

Milne, Bruce. *The Message of John*.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3.

Morgan, G. Campbell.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Old Tappan,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n.d.

Morris, Leon.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71.

Pink, A. W. *Exposition of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Zondervan Pub., 1975.

Ryle, J. C. *Expository thoughts on Luke*. Vol. 2. Edinburgh EH: The Banner of Truth Trust, 1858.

_____. *Expository thoughts on John*. Vol. 3.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873.

Sproul, R. C. St. *Andrew's Expositional Commentary: John*. Lake Mary, FL: Reformation Trust Publishing, 2009.

_____. *Can I Be Sure I'm Saved?* 조계광 역, 『구원의 확신』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Spurgeon, Charles Haddon. *The Treasury of the Bible, New testament.* Volume Two.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8.

Stowell, Joseph M. *Final Question of Jesus,* 박혜경 역, 『열정의 회복』 서울: 디모데, 2004.

Swartley, Willard M. *Believers Church Bible Commentary: John.* Harrisonburg, VA: Herald Press, 2013.

Tenney, Merrill C.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John*. Vol. 9. Grand Rapids: Zondervan Corporation, 1981.

Trench, Richard C. *Synonyms of the New Testament.*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and Company, 1894.

Westcott, B. F.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78.

Wiersbe, Warren W. *Be Transformed: An Expository Study of John 13-21.* Wheaton, Illinois: Victor Books, 1986.

Witmer, Timoty Z. *The Shepherd Leader,* 임경철 역, 『목자 리더십』 서울: 개혁주의 신학사, 2014.